

5/28/17

설교 제목: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6:1-12

- (히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 (히 6: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 (히 6: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 (히 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 (히 6: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절관주** 창 27:27, 레 25:21
- (히 6: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 (히 6: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 (히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 (히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 (히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문에는 해석하기가 난해하여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6 절 말씀입니다.

(히 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1.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등 알마니안을 따르는 교파에서는 우리가 한 번 믿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행동에 따라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칼빈 주의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부 시대에는 이 구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례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동안 박해하던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죽을 즈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황제이다 보니 전쟁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회개가 안되므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히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히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를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실패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글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쓴 배경, 즉 시대적인 상황, 독자, 그 글을 쓴 동기나 목적 등을 우선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동족으로부터 교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믿고 있는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 크리스찬이 된 동족들을 다시 유대교로 회귀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으며 남아 있는 자들도 심지가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점점 완전을 향해 전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동족의 회유나 핍박,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신과 같이 숭배하는 천사와 비교하여 그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들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비교하여 그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존귀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비교하여 그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였고 또 그 고난들을 어떻게 감수하였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참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배경과 기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 6: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의 뜻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것으로 회개, 신앙, 세례들,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여섯 가지를 꼽으면서 믿은 자가 한참된 자가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완전한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 6: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도는 믿음의 연륜에 걸맞게 마땅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데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전) 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히 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한 번'이란 횟수를 말한다가 보다는 '일단'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빛을 받고'는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하늘의 은사를 내면 깊숙히 체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상적으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도 같은 표현을 쓴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 체험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다'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지만 그 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를 말한대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고의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말합니다.

기자는 타락한 자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 놓고 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의 메시아되심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급된 네가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을 했음에도 타락한 사람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알미니안들은 네 가지 체험을 한 사람들을 진정 구원을 받은 참 신자로 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구원 받지 못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신자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 이어서 나오는 밭의 비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 6: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히 6: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밭이 각각 어떻게 비를 흡수하여 소출을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밭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모든 밭에 차별없이 내려 주십니다.

여기서 비는 교회 나오는 사람 모두, 참 신자이든 가짜 신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 언급한 네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와 저주를 받느냐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는 본문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 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믿고 완전한데로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그들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며 마무리 합니다.

(히 6: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본문은 1-3 절까지는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4-6 은 그들이라는 3 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언급한 타락한 자가 이 편지를 받아 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본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그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가 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데로 나가도록 강력히 독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를 더 확실하게 뒷바침해 주고 있습니다.

(히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한데로 나가야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완전한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